

올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인사 마무리

새얼굴 새바람 분다

검찰·경찰·공기업·재계 자리 이동 붐물



하옥현 광주경찰청장



정봉채 전남경찰청장



박희정 영산강환경청장



한우석 토공본부장

최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끝으로 올 광주·전남 주요 기관·단체장 인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명동성(54·사시 20회) 광주지검장을 광주고검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신상규(57·21회) 창원지검장을 광주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3월 5일자)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정진호(53·19회) 광주고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안창호(49·23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길태기(48·25회) 전 법무부 공보관은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또 3개월여 동안 자리가 비어있던 전남도 정부부처에는 이상면(52) 전 외환은행 글로벌개발 영업본부장이 임명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하옥현(5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정봉채(52)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됐으며, 박희정(55)씨가 영산강환경관리청장에 임명되는 등 관계 인사 이동이 잇따랐다.

공기업과 재계 인사도 줄을 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1일 신임 광주·전남중기청장으로 박준근(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부품소재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임했다. 신임 박 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연말·연초에는 광주·전남 공기업의 지역 본부장들의 자리 이동이 붐물을 이뤘다.

지난해 12월20일 권우중(53)씨가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장에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의 지역 단체장이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한우석(53) 전 토지공사 광주지주사업단장이 지난해 12월21일 토공 광주·전남본부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 이철현(55) 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과 전덕수(56)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장이 각각 연초에 취임했다.

또 1월2일에는 박연홍(59)씨가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강팔문(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오병균(50)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각각 1월18일자, 2월8일자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정병춘(53)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일선 세무서 순시 및 지역 상공인과의 만남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양준호(57)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난 1월15일 부임했다.

1월3일 신성수(55)씨가 농협광주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1월4일에는 국민은행의 박찬분(52)씨와 김종범(51)씨가 호남지역본부장에 따라 각각 호남남과 호남북을 총괄하게 됐다. 또 1월25일에는 이진서(53)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이 부임했다.

이밖에 김향덕(54)씨는 지난 1월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에 취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병춘 광주국세청장



양준호 광주조달청장



전덕수 한전본부장



이철현 주공본부장

내금강 관광 4월부터 가능할 듯

현대아산-북한 협의 순조

현대아산과 북한측의 내금강 관광 협의가 순조로 이뤄지면 4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북측과 내금강 관광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관광을 실시하는데 서로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4월초 정도면 내금강 관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내 남북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내금강 도로, 관광코스, 시설 보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내금강을 다녀올 수 있도록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올해 금강산 관광객 40만명 유치를 위해 제주항공과 연계해 김포-양양 노선을 운영해 금강산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외금강, 구릉

포 코스 등을 좀 더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아산측은 “제주항공과 협의서를 체결해 김포-양양 노선을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기로 했는데 일단 김포장이 완공돼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금강 관광 개시와 골프장 개장 등이 되면 금강산 관광객 40만명 유치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역대 국방장관 오늘 긴급 모임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을 2012년 4월 한국으로 전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역대 국방장관 등이 26일 긴급 모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전 국방장관은 25일 “김정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 성우희, 재창

균 회 회장이 26일 오전 10시 합동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의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인정을 정리할 것이라고 이 전장관은 전했다.

그는 “양국이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것도 아니고 두 나라 장관의 첫 상견례에서 전작권 문제를 합의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그리 급하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 전작권 환수 조기 합의 배경·전망

美, 준비기간 필요성 이해 반미감정 불씨 차단 포석



김정수 국방부장관이 지난 24일(한국시간)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워싱턴 DC 펜타곤을 방문, 로버트 게이트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전작권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조기 합의한 데는 미국이 양보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2009년을 주장하던 미국이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기간과 대북 억지력 확보 등을 감안해 2012년께가 적당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 왜 바꿨나=미국이 작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2012년 3월15일’보다 1개월 뒤인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전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은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는데 향후 4~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군 수뇌부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 군 수뇌부는 감시·정찰전력 등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보완전력을 구비할 때까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

고 미군 수뇌부를 설득해왔다.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드러났다가 잠시 주춤해진 반미감정이 재점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주둔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도 전작권 이양시기 조기 합의를 유인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미측이 미리 쐬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왜 4월 17일인가=양측이 택일한 전작권 전환일인 4월17일은 작년 제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마지노선인 2012년 3월15일보다 약 1개월 가량 늦춰진 날짜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일로 2012년 4월17일을 선택한 데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

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인 7월14일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날짜를 작전권이 처음 이양된 날인 ‘7월14일’의 숫자를 거꾸로 조합한 ‘4월17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17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다”면서 “택일하는데 양측이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로 ‘자주군대’ 위상 갖춰=전시와 병사로 나누어진 작전통제권 가운데 1994년 12월1일부터 병사 작전권만 단독행사하는, ‘반쪽 권한’만 가졌던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게 되어 명실공히 ‘자주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며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군사동맹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사령부의 기능을 맡아 독자적인 전쟁수행기구 역할을 하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CHIERE 다문화 소파
The 100% Made in Ita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광주광역시 동구 칠동로7길 11 구도상점 | 062)238-7507

항상 웃는 당신 그 비결은?

동성동성한 미미게 고민하세요! 센스모에 오시면 풍성해집니다!

김민아
주말출발! 10년
전 하이힐 착용장

김민아
주말출발! 10년
전 하이힐 착용장

062)3676-3645 / 062)402-3645

www.sensmo.com